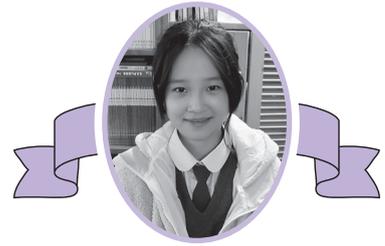


# 동상





## 내가 만약 대구시장이라면 자연과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래요



손채원 | 대구 영신초등학교 6학년

2020년, 지금의 내가 사는 도시는 온통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와 길에 버려진 개, 고양이들, 그리고 설자리를 잃고 소외되어가는 노인들, 거기에 올 한 해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코로나 사태까지! 원래도 인간의 정이 사라지고 경쟁만이 몰아치던 회색 도시였는데 코로나는 이 도시를 더욱 얼어붙게 만들었다.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, 마을은 원래 길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안 되고 개, 고양이들이 길가에 버려져 있지 않고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마주 보고 정답게 인사하고 봄에는 꽃향기를 맡고, 여름의 폭염에는 큰 나무 그늘에서 쉬고, 가을에는 단풍을 구경하고, 겨울에는 방 안에 모여 군고구마와 꿀을 나눠 먹으며 그날의 있었던 일을 가족끼리 나누는 풍경들이 마을을 꽉 채워야 한다.

그래서 내가 시장이 된다면 우선 점점 증가하는 쓰레기 문제는 직업을 잃은 노인

들에게 ‘길가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 줍기 일자리’를 줘서 노인들이 직장을 가질 수 있게 하여 해결하겠다. 그러면 사람들은 청결한 마을, 깨끗한 공원에서 마음껏 휴식을 취할 수 있어서 좋고 일석이조의 효과가 생길 것이다. 그 다음으로 각 동네마다 모든 길고양이들을 중성화하고 급식소를 설치해서 캣맘들이 돌아가면서 관리하게 하겠다. 그러면 밤중에 고양이 소음도 없어지고 쥐로 인한 전염병 걱정도 사라질 것이다. 또한 비둘기 개체 수 증가 문제는 북유럽의 방식을 따라 하여 먹이에 불임약을 섞어주고 알을 가짜 알로 바꾸는 방식 등으로 해결해야지 무작정 굶기거나 죽이거나 혐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. 하나 더, 각 동네마다 있는 유기견 보호소 관리를 철저히 해서 방치나 교통사고가 없도록 하고, 반려동물을 버리면 큰 벌금을 물게 할 것이다. 또한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 문제되고 있는 각종 희귀 야생동물 카페를 없앨 것이다. 왜냐하면 그런 동물들이 코로나를 전파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.

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지금보다 동네 곳곳에 나무를 더 많이 심고 주변에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건물들이나 폐업가게, 혹은 쓰이지 않는 땅을 모아 수목원과 공원을 최대한 많이 만들겠다. 도시가 시골이 될 순 없겠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최대한 살면서 초록색을 많이 보고 살게끔 만들고 싶다. 내가 사는 도시는 특히 산이 많은데 더 이상 산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는 자치령을 만들 것이다. 어른들의 골프 같은 취미생활도 중요하지만 한국같이 땅이 매우 좁은 나라에서 골프 등의 이유로 국토를 계속 훼손하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가 없다.

지금까지 내가 꿈꾸는 도시의 모습, 내가 시장이 된다면 만들어 나갈 도시의 모습을 글로 써보았다. 내 글의 핵심은 도시와 자연의 ‘공존’이다. 나는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

각하지 않는다.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 시도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이런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만이 미래를 지탱할 수 있을 것이다.